

# 産油國의 下流部門 진출과 歐美제국의 대응

## I. 産油國의 下流部門 진출 배경

OPEC(석유수출국기구) 산유국은 1970년대부터 풍부한 오일달러를 배경으로 工業化 정책의 일환으로서 自國資源의 활용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석유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 이들 프로젝트의 일부가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다.

석유정제 프로젝트를 보면, OPEC 산유국은 1990년경에 약 200만b/d의 설비능력이 증강될 전망이다. 내수의 급신장을 고려하여도 새로이 100만 b/d 전후의 수출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국의 정제·판매부문에 대한 직접 참여와 함께 이들 산유국의 下流部門 진출문제는 주목을 끌고 있다.

두번의 석유파동을 거친 자유세계의 石油수요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연평균 3.8% 하락하는 등, 산유국의 정유공장 건설, 제품수출을 둘러싼 환경 등은 당초의 개발·계획단계와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석유정책 즉 제품수출에 관한 기본적인 전략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산유국의 石油製品 수출전략

당초의 석유제품 수출계획은 경제사회 개발의 일환으로서 工業化 추진과 石油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를 추구하였으나, 80년대에 와서 석유 下流部門이 침체현상을 보이자 부가가치의 추구보다는 오히려 석유수출(원유/제품)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판매망의 다변화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국제석유시장은 공급과잉하에서 OPEC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유경쟁이 진전됨에 따라 제품 스파트시장이 原油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산유국의 제품수출에 관한 전략도 제품 스파트 시장에 대해서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사우디 아라비아의 얀부와 주베일 양 프로젝트의 제품판매 지침서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갖게하기 위해서 스파트 시장가격에 연동시키는 公式를 채용할 방침이며, 판매방법에 있어서는 제품값의 하락을 막기 위해 스파트 시장에는 직접 제품을 방출하지 않고, 거의 全量을 장기계약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도 판매망을 갖고 있는 대 석유 회사로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석유 下流部門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품시장이 취약한 산유국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완성, 가동시켜 公業화를 추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품시황의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정유공장의 가동률을 억제하거나 일부 프로젝트의 완성시기를 연장해야 되는 사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계획돼 있는 그 이상의 신규 프로젝트의 건설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앞으로 석유제품 수출전략의 중점은 제품시장의

(表 - 1) 中東·아프리카의 수출용 정유공장 주요 설비능력

(單位: 千b/d)

	프로젝트	常壓蒸溜	減壓蒸溜	接觸改質	接觸分解		水素化分解		熱分解		分解能力比 (對常壓蒸溜)	完工豫定
						殘渣用		殘渣用	비스비레이크			
사우디아라비아	얀 부	250	106.4	32	66				40		42.4%	1984.3 Q
	주 베 일	250	70	16			40		30		28.0	1985.1 Q
	라 비	325	120	50							0	1986
쿠웨이트*	미나. 압둘라	156.25	125				35				(67.2)	1986
	미나. 알. 아마디	15	60		30		35		70		(433.3)	1986
U A E	아쥬만	170		20					40		23.5	1987
리비아	라스라누프	220	26.5	25						11.848	5.4	1985.1 Q
計		1,386.25	507.9	143	96	0	110	0	110	81.848		

註: \*은 scrap build에 의한 증설분  
 〈資料〉 OGJ, Hydrocarbon Processing.

강화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책으로서는 쿠웨이트가 작년에 추진해온 Gulf 社의 下流部門 매수,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열회사를 통한 자본참가 등 소비국에 직접 침투, 또는 이미 시장 지배력이 강한 메이저나 대 석유회사와의 협력체제에 의한 시장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OPEC 산유국은 당분간 석유정책의 중점을 原油가격의 유지에 두고, 下流部門 진출도 이러한 범위내에서 제품시장을 강화하면서 공업화의 진전과 정유공장의 가동·고부가가치의 추··· 석유수출의 안정화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려되었던 제품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 Ⅲ. 歐美제국의 산유국 下流部門 진출에 대한 평가와 전망

歐美 각국의 석유산업(하류부문)은 현재 수요의 감퇴, 경쟁 격화등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설비처리등의 각종 구조개선 등에 의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의 산유국의 下流部門 진출은 歐美제국으로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歐美 각국에서는 OPEC 산유국의 석유제품 수출 여력에 대해, 각 정유공장의 가동시기·가동률·내수전망 등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으나, 1990년 시점에서의 증가분은 100만b/d 전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소련의 對 西유럽 제품수출분인 현행 약 90만 b/d는 앞으로도 경제성이나 품질면에서의 이 점 때문에 현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중 약 절반(40만~50만b/d)은 西유럽에, 나머지 절반이 美国 및 日本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등에 수출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주로 제품수출국과의 지리적 관계, 합병 파트너, 소비국측의 수급동향 및 정책, 제도면에서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西유럽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수량면에서의 영향은 비교적 경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西獨·이탈리아 등에서는 제도적인 면과 지리적 조건등 때문에 대량

(表-2) PETROMIN의 석유製品 장기판매방식 (개요)

1. 장기판매가격 公式

스파트가격의 Net back 가격 : 50% } →의 가중  
 \* 3 } 평균 가격  
 GEP \*1 또는 PP \*2 : 50% } 으로 한다

- \*1 term-oriented Government Established Price.
- \*2 Posted Price, Petromin이 설정한 公式 價格으로 GEP가 설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PP가 설정된다.
- \*3 단, 당해 비율은 시장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다.

2. 유조선 운임조정 公式

Net back 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유조선운임은 다음과 같다.

- ① WS \*4 레이트는 L. T. B. P \*5의 월차평가치 (Monthly Assessments)를 적용한다.
- ② 유조선의 크기  
 輕質제품 : 4 - 8만 dwt.  
 重質제품 : 8.5만 dwt.  
 \*4 World Scale  
 \*5 London Tanker Broker's Panel

3. 장기판매계약의 상대자 및 物量

- ① 계약 상대자는 약 12개社
- ② 계약량은 각사평균 100만톤 / 년 단, Phase-out 조항을 둔다.

의 제품수입이 예상되며, 일부 정유공장이 폐쇄될 가능성도 있어 그 영향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이밖에 또 일부에서는 수량면에서는 어쨌든간에 가격면에서의 영향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美國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오히려 앞으로의 제품무역의 행방과 수입원의 변경등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더 우려하는 견해가 일부에 있다.

이처럼 歐美 각국에서는 1990년 시점에서의 산

유국의 下流部門 진출문제에 대해 비교적 냉정하면서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유로서는

▲ 앞으로 産油國의 새로운 제품수출 여력이 비교적 소규모로 예상된다.

▲ 석유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상당한 신장이 예상된다.

▲ 합병 파트너를 주로한 메이저 및 대 석유회사 가 자체 판매망내에서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OPEC 산유국이 제품무역에 있어 질서있는 행동과 신중한 대응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등 4 가지 점을 들고 있다.

단, OPEC 산유국의 신설 정유공장이 잇달아 완성되는 1987년을 전후한 2, 3년간은 정제능력과 수요의 차이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석유제품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IV. 歐美각국의 대응정책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에 관한 歐美 각국의 대응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産油國으로부터의 제품수출 순증가분은 메이저의 판매망을 중심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흡수되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기본 인식하에서 현행 자유시장 정책과 原油와 製品의 혼합수출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EEC의 일반 특혜관세제도의 재검토와 사태에 따라서는 새로운 입법조치등의 검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美國에서도 당분간은 이 문제에 대해 낙관하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유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대응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사태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국제정치 문제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의견도 일부에 있다. \*

(순간석유정책 1/15)

부정 · 부패 · 인플레이心理를 追放하자